

□민속학자 故 김태곤 교수 추모 1주기 기념 - 학문적 업적 재조명

사람은 갔지만 학문은 남았다

주 강 현
(문학박사·국문학과 강사)



▲1960년대 초반 제주도 집안. 故 김태곤교수는 무속연구에 있어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사진제공: 우리문화의 수수께끼2)

1996년 1월 25일, 지금으로부터 1년여전에 본교 국문학과 남강 김태곤교수께서 세상을 떠났다. 별세할 당시의 그의 직책은 한국민속학회, 세계사마니즘학회, 경희대민속학연구소장, 한국-시베리아 친선교류협회장 등이었다. 그의 마지막 약력이 말해주듯 그는 한평생을 우리문화연구에 바친 외길 인생이었다. 불과 59세의 한창 일할 나이에 경황없이 세상을 떠났기에 그의 업적을 재평가할 시간조차 없었다. 당상을 18여년 주에서 모셔온 제자로서 지금 이 마당에 이같은 글을 쓰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 학자는 마땅히 학문으로써 평가받아야 하는 일, 그의 학문적 업적을 개괄적이나마 거슬러 올라가 본다.

남강선생은 국학대학(현 고려대) 출신이다. 당시 국학대학에는 통학 조지훈선생이 계셨으나, 그는 시인으로서는만이 아니라 훗날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장을 창설하고 초대소장을 맡았던 국학자였다. 말하자면 동학은 청록파로만 세간에 알려져 있으나 그의 업적에는 그에 못지않게 국학연구가 돋보인다. 남강선생은 한백상으로 남강손진대, 석남 송석하 등에서 통학으로 이어지는 민속학연구의 계보를 정통으로 잇고 있으며, 그 학맥이 경희대로 이어지고 있다.

남강선생은 일찍이 민속학에 입문하여 1965년 경희대대학원

에서 황천무가연구로 석사를 받았는데, 이는 우리 무속연구사에서 획을 긋는 논문으로 인정된다. 이로부터 '한국무가집' '한국무속연구' '한국민간신앙연구'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논문과 저술로 한국무속연구의 거봉으로 민속신앙연구, 고전문학분야의 무가연구 등에서 그의 연구는 앞으로 늘 활용될 전망이다.

방대한 학문적 스타일

남강선생의 이같은 관심은 한국 사마니즘연구의 뿌리를 찾는 시베리아 사마니즘으로 경도케 하였으며,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다. 당시의 집에도 다수의 무신도와 무속관련 민속품이 있고, 방대한 양의 사진자료(흑백과 컬러)도 풍부, 비무, 서적, 테이프(60년대의 무속연구에 결정적인 무가테이프)들이 남겨졌다. 이들 자료를 체계화하여 학계에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이들 유물들을

경희대 박물관에서는 학교측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시베리아 관련 유물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였으며 현재 박물관의 쓰다만 시베리아 관련 책자의 원고지가 주인을 잃은 채 남아 있었다. 미완성 유작의 학문적 계승이 후학들에게 남은 과제로 남겨졌다.

남강선생은 원광대박물관장, 경희대 박물관장 등을 통하여 민속유물수집에도 애착을 가졌다. 현재 원광대, 경희대에 있는 무속실의 방대한 컬렉션이 그 흔적이다. 당시의 집에도 다수의 무신도와 무속관련 민속품이 있고, 방대한 양의 사진자료(흑백과 컬러)도 풍부, 비무, 서적, 테이프(60년대의 무속연구에 결정적인 무가테이프)들이 남겨졌다. 이들 자료를 체계화하여 학계에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이들 유물들을

유족들과 협의하여 세상에 공개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 당대의 후학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손꼽아 본다. 외국 선례처럼 '남강컬렉션'이 우리문화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세계 사마니즘학회 창설

남강선생은 한국민속학의 토대를 건설하는데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는 민속학을 자본화 연구로 못박았으며, 그의 이같은 전통은 한국민속학회의 재건으로 이어졌다. 손보기선생 등과 한민족학회를 창건하였으며 2대 한민족학회장을 맡았다. 또한 아시아 민속학회를 창건하여 초대 회장을 맡았으며 동아시아 전체의 민족문화교류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의 이같은 노력은 세계사마니즘학회 창설로 이어졌으며, 특히 이 과

정에서도 본교의 후원에 힘입은 바 컸다.

그의 학문연구방법론은 현지조사에 기초한 것이었다. 민속학의 최대 학문적 장점으로 현지조사를 늘 강조하였으며, 수많은 현지조사 결과물들이 말해주고 있다. 그는 우리문화연구의 이론적 토대로서 카오스와 코스모스 이론에 입각한 원본사상을 제시하였으며, 평소에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손길에 의하여 20여편의 공동연구성과로 묶여져서 조만간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하는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그는 34권의 책, 164편의 글이 말해주듯이 한평생을 외길 학문을 걸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늘 그렇듯이 세상에 잊혀지기 마련이고 말도 많은 게 사람세상이다. 그의 연구도 인간이 하는 일인 이상 장점과 단점을 두루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서 한국민속학의 거두로서 걸어왔던 면모를 다시 확인하며, 그의 개인연구사가 곧바로 한국민속학 연구사, 더 나아가 우리 국학연구사의 많은 페이지를 채우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연구업적을 계승 극복하고 이를 우리 학문의 일로 전진을 위하여 쓰여지는데 활용하는 방안이 후학들에 의하여 적극 모색되어야 할 예정이다. 마침 이 글을 쓰는 와중에 내 옆에는 시베리아에서 방금 팩스가 도착하였다. 국제적 학술연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증거다.

평생 외길 학문 고집

그가 떠났지만 경희대민속학 연구소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본교 국문과의 이미원교수가 소장을 이어받아 새로운 차원의 민속학연구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민속학회도 제7집 한국민속학보를 무려 6백50쪽 규모로 남강선생 추모특집을 꾸미고 학술대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사람은 갔어도 학문은 남은 셈이다. 남강선생의 서거 1주년을 맞이하여, 불필요한 치례를 하기 보다는 그의 걸어온 학문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아보았다. 추후 기회 있는대로 선생의 학문적 성과의 공과를 기리는 연구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그때가서 면밀한 학문평가를 하기로 한다.

참으로 애달은 59세의 나이, 고인의 '우리학문 외길의 길', 그 뜻이 저버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민속학 관련 서적

- '늑대 세계사' C.콘팅
- '민속학의 수수께끼' M.해리스
- 주강현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1·2'
- '민속문화 백과 사전' 한국정신문화원
- '인간의 역사' E.세갈
- '농민' 에릭 올트
- '한국의 축제' 문예진흥원
- '집의 사회사' 강영환
- '한국 여사' 김용숙
- '한국 무속연구' 김태곤
- '한국 민속학 개론' 박계홍
- '단군' 서울대 출판부
- '우리 겨레의 전통생활' 이이화
- '민족 생활사' 이훈중
- '구비 문화의 세계' 조동일

□민속학이란 무엇인가

실학과 활발한 연구시작, 해방이후 남북 분단 발전

민족들의 문화와 풍습의 형성과정 및 합법적성을 밝혀내는 과학. 민속학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의 문화와 풍습을 역사발전 단계에 걸쳐서 연구한다. 한국민속학의 시발은 매우 멀리 소급된다. 고려시기 삼국유사 같은 자료도 민속학적 저술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민속학연구가 가장 집중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조선 후기 실학파에 의한 연구로 비롯된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을 펼친 실학파들은 민족의 현실 가운데 생생하게 반영되는 여러 민속학적 조사보고를 전해주고 있다. 이후 개항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한 연구가 있었으

나 이들의 연구는 개괄적인 소개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외국인의 인종우월주의에 의한 잘못된 편견이 주종을 이룬다. 일제침략이 강화되면서 최남선, 이능화 등에 의한 초기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일본인 관학파들에 의하여 일제식민통치를 강화시키려는 의도 아래 조선총독부 중추원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다. (조선의 풍수), (조선의 귀신), (조선의 점복과 예언) 등 일본인 관학파들에 의한 많은 연구는 일제식민정권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였다는 제한성을 지닌다. 이 당시 한국인에 의한 본격적인 연구는 손진대와 송

석하 등에 의하여 추진되었고, 이들은 이후 한국민속학의 초석을 놓는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해방 이후에는 남북 분단됨에 따라서 민속학도 각기 다른 방향으로 연구되어 왔다. 한국전설학회와 한국민속학회로 바뀌어 민속학연구의 중추로 작용하였으며, 이후에는 인류학이 도입됨에 따라서 한국인류학회가 결성되었고 다시 민속학회가 만들어져 민속학연구를 하고 있다. 90년대를 경과하면서 한국역사민속학회가 만들어져 역사민속학에 대한 입장계기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세시봉

공광선 편집장

대학답지 못한 대학의 선택



요즘 유행하는 말중에 '나의 경쟁상대는 ○○이다'라는 말이 있다. 실로 무한 경쟁시대를 실감케 하는 말이다.

우리 대학들도 무한 경쟁시대의 예외는 될 수 없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현실은 경쟁력을 상실하기에 충분하다.

미비한 정부의 국고보조,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영세한 재단전입금, 더구나 기업체의 기부도 열악하고 기여입학도 허용되지 않아 재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거의 의존해 왔다.

이런 사립대학의 현실속에서 전국 사립대 총장협의회(회장 박재규 경남대총장)는 정기총회를 갖고 사립대의 재정난을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 기여입학제 도입을 다시 거론했다.

기여입학을 통해 심각한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완화하고 장학금을 확충하여 학교발전을 이루고 기탄없이 우수한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일부 성적불량자의 해외유학등으로 인해 매년 적지 않은 국내재산이 해외로 유출되고 불건전한 과외교육비로 막대한 재산이 낭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여입학제의 도입이 지니는 긍정적 측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기여입학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기여입학에서 가급적 현금을 제한하고 토지나 건물 침당교육기자재나 도서 등에 중해야 한다. 또한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띠어야 하며 사전계획승인과 사후감사 강화의 견제장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더불어 대학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배분에 있어서 기여가 있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간에 신축운동도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의 인식도 무시할 수 없다. 그저 돈만 많으면 대학도 갈 수 있다는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여입학제의 선포와정에 있어서 기여정도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되고 여러가지 전형준거중 한가지로 조급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뜻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제 사립대학들의 재정난을 정부의 지원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89년부터 걸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기에는 대학의 발전보다는 유지에도 급급할 뿐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학들은 어쩔 수 없는 대학답지 못한 대학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학술단신

고고학특강 개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고학 특별강좌'를 3월 17일부터 연다. 3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5시에 진행되는 이 강좌는 '한국의 선사-고대문화', '발굴조사와 보존', '현장실습'으로 이뤄진다. 최동룡(서울대), 배기동(한양대), 이창규(영남대), 최성락(목포대)교수가 강의한다. (02) 266-6938

5·18 학술논문 공모

5·18민중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5·18에 대한 대학생들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5·18 기념재단에서 학술논문을 공모한다.

민주와 정의 5·18민중항쟁이 우리나라 민주화에 미친 영향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2백자 원고지 1백매이상이면 되며, 마감이 4월 15일이다.

'살풀이춤 탐구'페어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김문애씨가 살풀이춤의 기원과 형식, 미학적 특성을 故한영숙, 이매방, 김춘자씨를 통해 다룬 '3인의 살풀이춤 탐구'(홍경리)를 펴냈다.

성인대상 교양강좌

서울 YMCA 연희청소년회관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배움터·독서지도자·한국무용·컴퓨터·에어로빅교실과 어린이를 위한 그림교실·동화구연·종이접기·컴퓨터강좌를 다음달 3~4일 연

다. (02)338-4536

'여름살이' 창립학술제

농동아리 준비모임 '여름살이'에서 오는 8일, 창립총회 및 학술제를 개최한다. 농업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하는 창립학술제는 오후 1시에 열리며, 농동아리 건설과정과 이후 활동계획을 조망하는 창립총회는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장소는 문리대 208강의실이다. (062)523-0518

AFKN/L.C 무료강좌

종로외국어학원에서는 듣기 영역에 관심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AFKN/L.C 강좌를 실시한다. 당일 NEWS 받아쓰기, TOEIC L/C, TOEFL L/C, Pop English, Movie Disney 명작, 공익광고 등을 내용으로 다룬다. (02)734-0114

正道경영·초우량LG



최고의 꿈을 이루기 위해
21세기에 다녀왔습니다.



LG 21세기 선발대 탐방보고서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가 돌아본 국경의 공통점은 바로 관객까지 개념이었다. 슬로전만다 관객준수를 내세우고 있는 건 둘째치고라도, 다양한 관객서비스 아이디어와 하나같이 호텔 직원같은 친절함으로 극장 상황을 체크하던 직원들을 보며 결국 선전영화관정을 이끌어가는 힘은 참된 기술력도, 복합임지도 아닌 관객에 대한 가치 개념이라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번 탐방의 제1수확은 뭐니뭐니해도 '극장은 표창사'라는 생각이 깨어진 것이다. 극장 대영화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부대시설의 중요성 증대이다. 복합영화관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영화 외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21세기 극장사업의 최고 화두임은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96 LG 21세기 선발대 문화, 교육, 예술분야 대상팀
연세대 (채희승, 권혜진, 김주연, 유송)
테마: 세계의 복합 영상문화 공간.
한국형 영상문화 중심지의 내일
탐방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